블랙핑크, 5년만에 유튜브 최강자로

"우리는 가능한지도 몰랐던 존재로 성장했어요. 팬분들이 결과에 놀란 만 큼 저희도 놀랐거든요."(블랙핑크 로 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세상을 밝혀 라'에서)

K팝을 대표하는 걸그룹 블랙핑크 (Blackpink)가 명실상부 '유튜브 최 강자'로 등극하며 K팝의 영토 확장에 또 한 번 의미 있는 기록을 썼다.

블랙핑크 유튜브 채널은 지난 10일 오후 7시 기준 구독자 6,530만 명을 기 록하며 팝 스타 저스틴 비버를 제치고 세계 아티스트 가운데 1위로 올라섰다.

유튜브는 K팝을 세계적 콘텐츠로 만 든 대표적 뉴미디어 플랫폼이다. 2016 년 8월 데뷔한 블랙핑크는 K팝 그룹 중 에서도 특히 유튜브에서 강력한 영향력 을 발휘해 일찌감치 '유튜브 퀸'이라는 수식어를 얻었다.

이규탁 한국 조지메이슨대 교양학부 교수는 "K팝은 유튜브를 포함한 인터 넷 기반 미디어와 상부상조 관계를 맺 으며 확장했다"며 "(블랙핑크의 1위 는) K팝이 인터넷 미디어 플랫폼에서 가진 큰 힘과 영향력을 더욱 상징적으 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튜브에서 사랑받는 블랙핑크의 영 상 콘텐츠에는 음악뿐만 아니라 퍼포먼 스, 패션, 무대 연출 등 K팝의 '최첨단 미학'이 응축돼 있다는 평이다.

이들의 뮤직비디오는 K팝 그룹 중에 서도 특히 화려한 비주얼을 구사한다. 유튜브 16억 뷰를 돌파한 '뚜두뚜두' 뮤직비디오에서 멤버 제니가 은빛 탱크 모형을 타고 등장하는 등 다양하고 과

화려한 시각효과·무대 위 카리스마로 인기몰이 각각의 아우라로 시너지 내는 'K팝 문화 아이콘'



구독자 6,530만명을 기록하며 세계 아티스트 가운데 유튜브 채널 구독자 1위를 달 성한 걸그룹 블랙핑크. /연합뉴스

감한 세트·의상에 아낌없이 물량을 투 입한다. 이는 시·청각이 어우러진 강렬 한 경험을 팬들에게 선사한다.

음악은 대중적이다. 블랙핑크의 프로 듀싱을 맡아 '제5의 멤버' 로도 불리는 프로듀서 테디는 강렬한 힙합과 팝 사 운드, 직관적 멜로디를 접목해 팬층뿐 만 아니라 다양한 청자에게 소구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들어왔다.

반면 무대에선 서구 팝스타를 연상시 키는 카리스마를 선보였다. 이들은 청 순함, 귀여움 등 K팝 걸그룹에 기대하 는 일률적 이미지가 아니라 '고급스러 움'을 강조하는 전략으로 초기부터 승

제니, 지수, 로제, 리사 네 멤버가 각 각 뚜렷한 고유의 아우라를 보여주며 그룹 전체의 입지를 강화하는 것도 블 랙핑크의 특징이다. 2018년 제니를 첫 주자로 올해 3월 로제, 10일 리사가 솔 로곡을 발매하는 등 적극적으로 솔로 활동에 나섰고 지수는 최근 배우로 활 동을 시작했다.

이런 전략과 특유의 고급스러운 이미 지는 네 멤버를 팬층뿐만 아니라 광범 위한 대중에게 선망받는 '셀러브리티' 이자 패션 아이콘으로 만들었다.

이규탁 교수는 "유튜브나 인스타그 램 등에서 높은 인기를 얻기 위해서는 음악 외적인 부분에서 호소력을 줄 수 있어야 한다"며 "블랙핑크는 세련되면 서도 다양한 외적 이미지를 구축해 K팝 전체를 아우르는 일종의 문화 아이콘이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펜트하우스' 최고 악역은 바로 나"

천서진 연기한 김소연 "나조차도 미웠던 캐릭터" "충격적 악행에 처참한 결말 맞을 거라 늘 생각"

하우스' 최고 악역은 저인 것 같아요.

지상파 드라마의 저력을 보여준 SBS TV 인기 드라마 '펜트하우스' 시리즈의 주연배우 김소연(41)이 자신이 연기한 천서진을 최고의 악역으로 꼽았다.

그는 최근 화상 인터뷰를 통해 "모두가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 연기하자고 생각해 왔다. 그런데 오윤희(유진 분)를 죽음으 로 몰았던 절벽 장면, 로건 리(박은석)에 게 뜨거운 물을 붓는 장면에서는 천서진 이 너무 미웠다"고 토로했다.

들에게 충격을 안긴 결말에 대해서는 "악행이 너무 심해서 처참한 결말이 있 다"고 말했다.

"시즌 3까지 다 오고 보니까 '펜트 펜트하우스의 최상층, 그리고 딸 하은별 (최예빈)의 성공 등 자신의 목표를 위해 서 여러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붙인 천서 진은 '용서할 수 없는 악녀' 이지만, 김소 연의 연기가 더해지면서 시즌이 거듭할수 비 27년 차에 접어든 김소연은 배우 생활 록 시청자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캐릭터

중하나가 됐다. 김소연은 "천서진의 처절함을 안타깝 천서진의 악행을 뭐라 해도 나만큼은 이 에 보시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큰 관심을 주신 것 같다"며 겸손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매회 아니 매 장면이 너무너무 두렵고 힘들었다"고 회상했다.

"내가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생각도 들고, 천서진이 화도 많이 내고 울기도 많 천서진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시청자 이 울어서 어떻게 강약조절해야 할까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깨 준 특별한 작품이 민도 많았다"고 털어놨다.

겠지 늘 생각했다"며 "굉장히 만족한 내고 집으로 돌아갈 때의 후련함이 저에 랑을 한 몸에 받았던 '펜트하우스'가 될 겐 너무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프리마돈나의 영예, 청아 재단 이사장, 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이런 장면을 연기

할 순간들이 내 인생에 몇 번이나 될까 이 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주먹을) 불끈 쥐 고 했었죠."

김소연은 이번 작품을 통해 백상예술대 상 TV부문 여자 최우수연기상을 받으며 데뷔 이래 최고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중학생 어린 나이에 데뷔해 어느덧 데 의 전환점이 된 작품으로 드라마 '아이리 스', '검사 프린세스', '펜트하우스'를 꼽았다.

"1등은 '아이리스' 같아요. 부끄럽지 만 그전까지는 작품을 할 때 '어떻게 하 면 예쁘게 보일 수 있을까' 철부지 같은 생각을 했는데 처음으로 정신을 차리고 했던 작품이거든요. (웃음) '검사 프린세 스'는 '내가 로맨틱코미디를 과연 할 수 에요. 배우 생활의 전환점이 된 마지막 작 "지금 생각하면 그 힘든 걸 어떻게 해 품 하나는 아마도 천서진으로서 많은 사 /연합뉴스

'샹치와 텐 링즈의 전설' 2주째 정상

주말 관객 수 전주보다 35% 감소한 60만8천여명

마블의 블록버스터 '샹치와 텐 링즈의 전설'이 2주 연속 주말 박스오피스 정상 을 차지했다.

13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 합전산망에 따르면 '샹치와 텐 링즈의 전 설'은 지난 주말 사흘(10~12일) 동안 29만7,000여명(매출액 점유율 50.1%) 의 관객을 모아 박스오피스 1위를 지켰 다. 지난 1일 개봉 이후 누적 관객은 122 만6,000여명이다.

지난여름 흥행을 이끌었던 한국 영화 가 5위와 6위에 올랐다. 세 편이 뒤를 이었다.

'모가디슈'는 8만여명(13%)의 관객 을 모으며 '인질'을 제치고 2위로 올라섰

다. 지난 7월 28일 개봉 이후 누적 관객은 338만1,000여명이다.

'인질'이 6만8,000여명(11.1%), '싱 크홀'이 3만5,000여명(5.7%)의 관객을 더해 누적 관객은 각각 152만1,000여명, 217만명을 기록했다.

새로 개봉한 영화 중에는 4K UHD 버 전으로 재개봉한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애니메이션 '너의 이름은' 과 여성 킬러 들의 액션 영화 '건파우더 밀크셰이크'

지난 주말 극장을 찾은 관객 수는 60만 8,000여명으로 전주(93만3,000여명)보 다 35%가량 줄었다.



MBN 연애 리얼리티 '돌싱글즈'.

/MBN 제공

현실 돋보인 '돌싱글즈' 3% 종영

최고 성적…내달 시즌2 예고

비연예인 '돌싱' (이혼한 사람을 일컫 는 속어) 남녀 8명이 모여 새로운 사랑을 찾아 나서는 파격적인 설정이 눈길을 끄 는데 성공했다.

13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20분 방송한 MBN 예능 '돌싱글즈' 마지막 회가 2.389%-3.363%(이하 비지상파 유료가구)의 시 청률을 기록하며 자체 최고 성적으로 마 무리했다.

전날 방송에서는 3개월 만에 다시 모인 출연진이 합숙과 동거에 관한 뒷이야기를 들려줬고, 현재의 관계까지 진솔하게 전 했다. 실제 커플이 된 사례는 없다고 출연

진들이 밝혔으나 친한 친구가 된 모습으 로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돌싱글즈'는 파격적인 설정과 더불어 자녀 여부에 따라 상대의 선택도 달라지 는 현실적인 심리 변화, 싱글맘과 싱글대 디의 공동육아 등 특별한 장면들을 연출 하며 공감을 얻었다.

최근 '돌싱 예능'이 다양하게 생겨나 는 가운데 가장 현실감을 살렸다는 평가 를 받기도 했다. 덕분에 시청률도 1회 1.2%에서 점점 상승곡선을 그리며 결국 3%를 돌파하는 데 성공했다.

제작진은 "더욱 강력한 출연진의 달곰 쌉쌀한 연애 이야기로 돌아오겠다"며 시 즌2를 예고했다. 시즌2는 다음 달 중 시 작할 예정이다.

캐나다 오타와 한국영화제 오는 20일 개막

캐나다 한국문화원은 20일부터 10 월 13일까지 열릴 제4회 캐나다 오타 섭'이 독일기자 '피터'를 태우고 광 와 한국영화제에서 '밀양' 과, '곡 성', '경주' 등국내도시를 소재로 했 거나 주제로 한 영화가 상영된다고 야기를다루고, '바람의 언덕' 은주인 13일 밝혔다.

'한국도시로의 초대'를 주제로, 택다. 시 운전사(감독 장훈)와 곡성(감독 나홍진), 바람의 언덕(감독 박석영), 밀양(감독 이창동), 애월(감독 박철 우), 경주(감독 장률)를 선보인다.

'택시 운전사'는 택시 운전사 '만 주에 가서 일어나는 일을 다룬 영화 로, 5·18 민주화 운동 당시의 광주 이 공 '영분'의 고향 태백을 배경으로 한

올해 영화제에서는 국내 토털미술 관과 협업해 현대 미술 작가들의 영상 작품을 상영하는 '한국으로의 초대: 비디오 아트'도 진행한다. /연합뉴스

9월 14일 (음력 8월 8일)

오늘의 운세

요구될 수 있다.

10

김도완 선생 제공 02-766-1818 www.esazu.com

김소연



 \pm

49년생 오늘은 외출을 삼가고 집에서 쉬어라. 61년생친구따라 강남 간다. 73년생 수입이 증 가하는 날이다. 85년생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 할수있다.



50년생 먹을 것 없는 제사에 절만 한다. 62년생 주변에 내 편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74년생 실 속은 없고 힘들기만 하다. 86년생 이별수가 있 으니 조심하라.

42년생 아랫사람의 눈치를 봐야 할 때도 있다.

54년생 힘들게 쌓은 실적을 한꺼번에 다 날린



51년생 순리를 따르면 백사대길하다. 63년생 될 놈은 어떻게든 된다. 75년생 마음에 없는 말 은 하지도 말라. 87년생 철저히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는다.



52년생 매사에 신중히 생각하라. 64년생 친구 의 꼬임에 넘어가면 안 된다. 76년생 덕을 쌓으 면 복을 받는다. 88년생 눈치 없이 나서면 미움 을 받는다.

48년생 구설수를 조심해야 한다. 60년생 오늘

만은 배우자와 다투지 말라. 72년생 부부간에

도 지켜야할 선이 있다. 84년생 갑절의 노력이



巳

41년생 하늘이 내 편이니 거칠 것이 없다. 53년 생 과정은 힘들겠지만 결과는 좋겠다. 65년생 운세 좋은 기쁜 날이다. 77년생 열심히만 하면 성취하겠다.



다. 66년생 반가운 소식이 있다. 78년생 이성과 다투지 말라.



43년생 좋은 사람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55 년생 한눈팔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 67년생 마 음을 너그럽게 먹어야 한다. 79년생 대인관계 가 활발해진다.



44년생 인생이 항상 행복할 수는 없다. 56년생 몸과 마음 모두 지친다. 68년생 밝은 미래만 생 각하자. 80년생 평화로운 일상에서 행복한 일 이 있겠다.



45년생 항상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57년생 속상한 일이 있어도 웃어 넘겨라. 69년생 그리 운 사람의 연락을 받는다. 81년생 망설이지 말 고 추진하라.



46년생 노력해도 성과가 없다. 58년생 직장과 가정 어느 것도 포기하지 말라. 70년생 모든 것 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82년생 중요한 사안은 재검토하라.



47년생 대세를 좆아서 순응함이 이롭다. 59년 생 오늘은 신경 써야할 일이 너무 많다. 71년생 시작이 반이다. 83년생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 을 다하라.